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피해자 보호 계획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 모든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11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예방 교육 활성화 △소통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전체 기관과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교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교직원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고지원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센터-갑질행위 신고)를 운영한다.

또 피해자와 관련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방 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기관과 학교의 내부 구성원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유형·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유하는 등 교직원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생활관에 대학원 및 외국인 학생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전용 공간인 'JBNU-G 대학원 스터디 라운지' 개소식이 18일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세상 바꿔나갈 대학 연구경쟁력 원천

대학원생 · 외국인 학생 연구력 향상 전용 공간
전북대, 'JBNU-G 대학원 스터디 라운지' 개소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생활관에 대학원 및 외국인 학생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전용 공간인 'JBNU-G 대학원 스터디 라운지'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그간 대학원 및 외국인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관 참빛1관 101호실을 새 단장해 98㎡ 규모의 스터디 라운지를 조성했다.

이날 오후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된 스터디 라운지를 함께 둘러봤다.

대학원 스터디 라운지는 생활관 입주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누구나 편하게 찾아 함께 공부하며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안정감도 높일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426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117명의 대학원생이 생활하는 참빛관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오늘 문을 연 대학원 스터디 라운지는 세상을 바꿔나갈 전북대 연구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이 공간이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오후 2층 강당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모집한 위원 18명, 교육감 추천 위원 6명, 임기 연장 위원 6명으로, 앞으로 전북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위촉식에 이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분과별 회의 △2025년도 전북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7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1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18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예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 변혁 촉구한다"

전북교총, 교권 침해 사안 엄정 대응 ·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등 7대 과제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총은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 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만들기' 위한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경하게 고발 대응해 공교육기관의 엄정함을 보이고, 공권력을 통한 강제력을 부여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로, 전북교육청은 2024년 초등학생 평가 시행 및 지원계획에서 총괄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며, 이번 학생 평가 개선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괄평가로 인한 추가적 업무가 발생해 교원의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평가도구 개발 등 구체적인 평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번째로, 교실 내 몰래 녹음으로 인해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협박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지위법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녹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번째로,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전북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해 사안 조사를 전담하고, 법률 상담이나 소송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교원순직 인정제도 확대와 나아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교원이 가르치는 본질 업무 외에는 행정업무를 부담해서는 안 되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와 관련해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원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부여, 수업시수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만이 지방소멸을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교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7대 교육변혁 과제를 제시했다"며 "특히 선생님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사회 모두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올해 총 163개교 1442명 교원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에듀테크 능력을 가진 교원(멘토)과 배움을 희망하는 교원(멘티)의 상호 나눔을 통해 멘티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수업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에 따라 도내 초·중·고 163개교, 1442명의 교원이 참여한다.

지난해의 2배 규모다.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는 멘토 교원이 멘티 교원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에듀테크 관련 연수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스마트기기 활용 학급운영 방법,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에듀테크 활용 수업 공개 등을 통해 전달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5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연수를 필수과제로 운영해 새로운 교육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멘티로 참여한 전주의 한 초등교사는 "에듀테크 멘토링 제도를 통해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수업 나눔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이 향상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올해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나눔에 앞장서는 멘토와 기꺼이 배우려는 멘티들의 열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9일까지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119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숙사 화재대피훈련은 야간시간 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특히 피난 대피로 적재물 여부, 옥상 출입문 개방 여부, 전열기구 주변 가연성 물질 여부 등을 확인해 대피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8일 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자는 2월말 정년퇴직한 국어교육과 김용재 교수와, 미술교육과 박진희 교수다. 이들은 재직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박병춘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힘써준 교원분들의 명예로운 포상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고, 계속해 우리 대학의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부설 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입학식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원장 이립)은 지난 16일 황학당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109명의 신입생과 학부모, 과정별 담임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최병연 교수의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마련됐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은 창의적표현과 글쓰기, 수학, 영어, 과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과정 등 7개 학급을 운영중이다.

이립 원장은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특산물 건강 먹거리' 팝업 스토어 성료

전주대 K-Food 산업연구소

전주대학교 K-Food 산업연구소는 남원시와 롯데백화점과 함께한 '남원 건강 먹거리' 농특산품 팝업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K-Food 산업연구소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RIS)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 상품을 전략적으로 브랜딩해 남원시의 미식 문화 확산을 목표로 10~17일까지 8일간 롯데백화점 전주점 B1 식품관 이벤트 홀에서 농특산물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K-Food산업연구소장)와 연구진은 남원 특산품 백향과를 이용한 △남원 백향과 아이스크림과 △남원 백향과 초콜릿 상품 2종을 개발하여 선보였다.

김수인 교수는 "전주대와 남원시, 그리고 롯데백화점 전주점 간 지역 내 농특산물 제품 판로 지원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지역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 상품 개발과 안전한 먹거리 및 미식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원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며 "남원시가 미식관광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전주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